

## 현대 중국어 2음절 다품사어 ‘X+然’의 형태·통사적 생성과 도출

장호득\*

### — 목 차 —

1. 서론
2. 형용사를 포함한 다품사어의 분석
  - 1) 형용사와 부사로 된 다품사어
  - 2) 형용사와 접속사로 된 다품사어
3. 형용사를 제외한 다품사어의 분석
  - 1) 동사와 부사로 된 다품사어
  - 2) 부사와 접속사로 된 다품사어
  - 3) 명사를 포함한 다품사어
5.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현대 중국어 2음절 다품사어 ‘X+然’ 구조의 형태·통사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现代汉语词典』(第七版)에 실려 있는 2음절 다품사어 ‘X+然’ 구조에 해당하는 어휘로, 형용사를 포함하는 다품사어 ‘偶然’, ‘纯然’, ‘冷然’, ‘当然’, ‘浑然’, ‘断然’, ‘不然’ 7개와 형용사를 포함하지 않는 다품사어 ‘已然’, ‘依然’, ‘果然’, ‘诚然’, ‘必然’, ‘自然’ 6개로 나눠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기존에 주장과 달리 ‘X+然’의 ‘然’은 형용사와 부사 접미사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명사, 동사, 구별사, 접속사의 접미사로도 기능하고 있다.

둘째, ‘X+然’은 형태적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근구(Root Phrase)의 투사를 통

\* 단국대학교 외국어대학 아시아중동학부 중국학전공 교수

한 통사적 연산으로 통합합성어를 생성한 후 그 통사구조를 유연하게 생성·도출한다. 결론적으로 ‘X+然’은 형태·통사적 특징을 가지며, 통사적 층위까지 연결되어 그 정체성을 발현하는 분산형태론(Distributed Morphology)의 내현적 통합합성어(Covert Synthetic Compounds)이다.

**키워드:** 현대 중국어, ‘X+然’, 2음절, 다품사어, 형태-통사적, 통합합성어

## 1. 서론

본고는 『现代汉语词典』(第七版)의 표제어 가운데 2음절 다품사어<sup>1)</sup> ‘X+然’ 구조를 찾아 분류·분석한 후 그 형태·통사적 특징을 구명(究明)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주장은 ‘X+然’의 ‘然’을 단순히 형태론적 관점에서 형용사나 부사의 접미사로만 봐 왔다. 이에 대해 본고는 ‘X+然’의 ‘然’이 단순히 형태론적 관점의 형용사나 부사의 접미사 기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명사, 동사, 구별사, 접속사 등의 접미사 기능도 갖고 있으며, 여기에는 통사적 기능도 내현적(Covert) 상태로 포함되어 있어 통사적 연산 과정에서 일정 역할을 하는 분산형태론(Distributed Morphology)<sup>2)</sup>의 관점을 적용하여 ‘X+然’ 구조

1) 본고의 ‘다품사어’는 하나의 낱말이 명사, 형용사, 동사, 접속사 등 다양한 기능을 갖고 그런 내용이 사전에 실려 있으면서 통사적 기능도 다양하게 도출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품사어’는 사전의 표제어는 아니지만 ‘다-’와 ‘-어’가 각각 접두사와 접미사이므로 본고에서는 전문 용어로서 ‘다품사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본고의 ‘다품사어’는 문법책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겸류사(兼类词)’와는 다르다. 자면(字面)으로만 보면 ‘겸류(兼类)’는 ‘류(类)’를 ‘겸(兼)한다’는 뜻인데 한 낱말에 여러 품사가 있다 하더라도 통사적 생성·도출될 때는 하나의 ‘류(类)’만 선택하여 도출하므로 실제로 어휘의 ‘겸류(兼类)’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2) 이 이론은 Halle & Marantz(1993, 1994)가 제시한 문법 이론으로 전통적인 어휘론과 달리 어휘부가 아닌 통사부가 단어 형성에 관여한다고 보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관련 내용은 Morris Halle & Alec Marantz(1993: 111-176), Morris Halle & Alec Marantz(1994: 275-288), Heidi Harley and Rolf Noyer(1999: 3-9)를 참고하기 바람. 한국어 논문은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박소영, 「한국어 통합합성어의 통사구조와 형태: 통사론의 접면」,

의 이런 통사적 속성이 어떻게 생성·도출되는지를 살펴보겠다.

분산형태론의 핵심 내용은 장호득(2021b: 334)에 따르면 “생성문법의 전통 어휘론과 달리 통사부 입력 단위를 ‘단어’가 아닌 ‘형태소’로 보면서 단어 형성 부문도 ‘어휘부’가 아닌 ‘통사부’로, 형태-통사부의 관계를 ‘순차적, 분리적 관계’가 아닌 ‘잠재적 비분리적 관계’로 본다.”는 관점이다. 이 주장은 통사부에 경도된 경향이 있는데, 본고는 이를 다소 수정하여 ‘어휘부’와 ‘통사부’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어휘부는 재분석과 형태의 관점에서, 통사부는 낱말 간의 관계와 역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X+然’ 구조에 대해서는 문언문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졌는데, 일반적으로 ‘然’을 형용사나 부사의 후철[后缀] 또는 사미[词尾]로 보고 있다.<sup>3)</sup> 이에 대한 내용은 장호득(2021a: 197-198)<sup>4)</sup>에 실려 있으며, 본 연구는 고대 한어나 문언문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본고는 현대 중국어를 연구 범위로 하면서 자료는 『现代汉语词典』에 나오는 표제어를 전수조사하여 생성문법의 방법론과 분산형태론의 이론을 접목하여 분석한 후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장호득(2021a, 2021b, 2021c)이 있다. 그는 현대 중국어의 2음절 ‘X+然’ 구조를 단일 품사어와 다품사어로 나누어 발표하면서 또 각각에 대한 중한 대조 분석으로도 확장하여 연구하고

『생성문법연구』 제21권 제4호, 한국생성문법학회, 2011, pp.685~706.; 박소영, 「분산형태론의 이론적 동향과 한국어 문법」, 『우리말연구』 49집, 2017., pp.91~121. 본고는 이런 관점을 받아들이면서도 단어의 재분석이나 형성으로 볼 때 형태론과 통사론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함께 관여한다는 관점을 취한다.

3) 후철[后缀]과 사미[词尾]는 중국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한국어로는 ‘접미사’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중국어 연구 상황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대로 사용하고 일반 논의에서는 한국어 용어 접미사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4) 장호득, 「현대 중국어 2음절 단일 품사어 ‘X+然’과 그 동형 한자어의 형태론적 중한 대조 분석」, 『중국문학연구』 제82집, 한국중문학회, 2021a, pp.197-198. 그는 형용사와 부사의 후철로 보는 견해[周秉钧(1978: 242-243), 蒋礼鸿任钟善(1984: 151), 杨伯俊、何乐士(1992: 504-505) 등], 형용사의 후철로 보는 견해[廖序东(1981: 39), 董琨(1986: 136), 许仰民(1988: 20-21) 등], 부사의 후철로 보는 견해[张贻惠(1957: 56-57), 蒲立本(孙景涛译, 2006: 114) 등]로 나누어 선행 연구를 정리하고 있다.

있다. 이는 董同龢(1981: 316)의 관점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는 ‘古語字義’의 연구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면서 한 권, 한 권의 고서를 단위로 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연구한 후 이런 연구 결과가 상당히 쌓인 후에 종합하여 비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5)</sup> 이런 관점에서 필자도 현대 중국어 ‘X+然’을 기점으로 2음절 구조, 다음절 구조, 다품사어, 단일 품사어 등의 공시적 정체성을 규명한 후 근대 중국어, 고대 중국어의 공시대, 통시대에 대한 시리즈 연구를 집적하여 비교하면서 종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2음절 ‘X+然’ 다품사어를 『現代漢語詞典』(第七版)에서 추출하여 얻은 13개 어휘를 1차적으로 분류한 결과 형용사가 그 가운데의 어떤 경향성을 대표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들을 ‘형용사를 포함하는 다품사어’와 ‘형용사를 제외한 다품사’로 나누고, 이에 따라 형태-통사적 특징을 규명함과 동시에 논지 전개 편의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겠다.

## 2. 형용사를 포함한 다품사어의 분석

본고는 이상의 어휘 가운데 『現代漢語詞典』(第七版)에서 형용사, 부사, 접속사 등 2개 이상의 품사로 풀이된 표제어-‘純然’, ‘當然’, ‘斷然’, ‘渾然’, ‘冷然’, ‘偶然’, ‘誠然’, ‘果然’, ‘不然’, ‘依然’, ‘已然’, ‘自然’, ‘必然’-13개를 대상으로 형태-통사적 특징 및 그 생성과 도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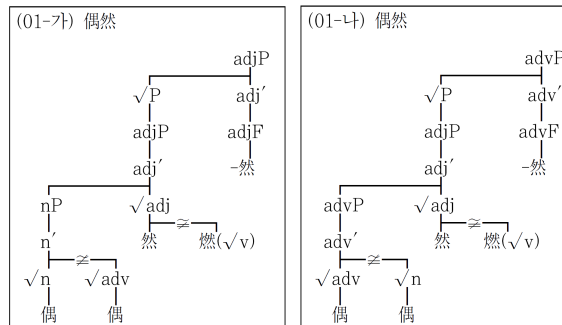
형용사를 포함한 다품사는 형용사와 부사로 된 것과 형용사와 접속사로 된 것이 있는데 아래에서 이 두 부분을 나누어 분석하겠다.

5) “我們要把每一部古書當一個單位來做。每一部書有它的時代性與地域性，分開單獨做才不至於彼此混淆，得到的知識才是準確性較大的。……一直要等到單獨的分書的研究有了相當穩固的基礎，我們才能談到綜合或比較，我們才能談到古語字義的演變，只有這樣，我們才能為古語字義的研究莫立一個穩固的基礎。”[董同龢：「古籍訓解和古語字義的研究」(丁邦新編，『董同龢先生語言學論文選集』)，台北：食貨出版社，1981，p.316.]

1) 형용사와 부사로 된 다품사어

형용사를 포함하는 다품사어는 다시 ‘형용사와 부사로만 풀이하고 있는 것’과 ‘형용사와 접속사로 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现代汉语词典』(第七版)의 표제어 중 형용사와 부사를 아우르는 다품사어는 ‘偶然’, ‘纯然’, ‘冷然’, ‘当然’, ‘浑然’, ‘断然’ 등 6개이다. 낱말의 내부 구조를 분석한 아래 수형도<sup>6)</sup>를 보자.



(01-가)는 ‘偶然’이 형용사성 어근구(√P)로 투사(projection)되어 형용사화 기능범주(functional category) adjF ‘-然’과 결합하여 형용사성 통합합성어(Synthetic Compound) adjP를 생성하고 있고, (01-나)는 (01-가)처럼 ‘偶然’이 형용사성 어근구(√P)로 투사되고 있긴 하지만 부사화 기능범주 advF ‘-

6) 본고의 수형도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생성문법에서 다루는 것이며 일부는 본고에서 필요하여 추가한 것도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장호득(2021b: 335-336)을 참고하기 바람.

7) ‘AdjP’, ‘adjP’처럼 첫 번째 대·소문자를 구분하고 있는데, 전자는 ‘기본 어휘 배열 층위’에 속하는 것이고, 후자는 ‘분산형태론’이나 통사적 도출의 ‘사건구조화 층위’에 속하는 것이다. 즉, 후자는 문자화(spell-out)되지 않은 상태의 특징을 내현적(covert)으로 내포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는 ‘의미 항목은 다르지만 통사적 연결 고리가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 ‘≇’는 ‘의미 항목도 다르고 연결 고리도 약한 경우’를 가리킨다.

然'과 결합하여 부사성 통합합성어 advP를 생성하고 있다. 또 어근구(√P)의 '偶然'이 기능범주 adjF 또는 advF '-然'과 결합하면서 중간 계층인 adj'나 adv'와 만나 통합합성어로 생성되는 과정에서 '然'이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을 수형도에서 보여 주고 있다.

'偶'는 하영삼(2014)에 따르면 “형성. 人(사람-인)이 의미부고 禺(긴 꼬리 원숭이-우)가 소리부로, 사람(人)을 닮은 긴 꼬리 원숭이(禺)를 말하며, 이로부터 원숭이처럼 사람을 닮은 '인형'의 뜻이, 다시 사람과 짝을 이룬다는 뜻에서 '짝'의 뜻이 나왔다.”<sup>8)</sup>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로 볼 때 '偶'의 원형 의미(Prototype Meaning)는 '사람을 닮은 긴 꼬리 원숭이'를 뜻한다고 할 수 있으며 (01-가)처럼 '偶'가 명사성 어근(√n)으로 투사되어 '닮은꼴이 그러하다'에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또 『现代汉语词典』(第七版)의 풀이에 따르면 '偶'를 세 개의 표제자로 구분하여 하나는 품사 표시 없이 “나무나 진흙 등으로 만든 사람 모양의 상(像)”으로 풀이하고 있고, 다른 하나도 품사 표시 없이 “짝수, 짝, 성씨” 등으로 풀이하고 있고, 세 번째는 부사로 '우연히, 이따금'의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sup>9)</sup> 이렇게 볼 때 확장 의미(extended meaning)로는 '짝수, 짝'이란 명사와 '우연히, 이따금'이라는 부사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가운데 (01-나)의 '偶'는 먼저 부사성 어근(√adv)으로 투사되었다가 '然'을 만나 어근구(√P)를 형성한 후 다시 부사화 기능범주 advF '-然'과 결합하여 부사성 통합합성어 advP를 생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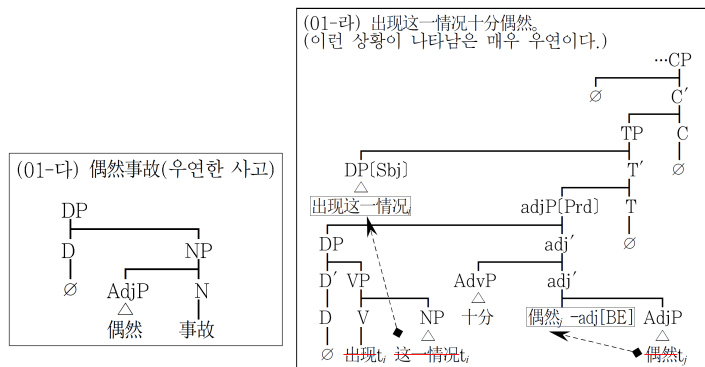
이처럼 '-然'을 기존의 관점처럼 형용사나 부사의 접미사로도 볼 수 있지만 한 발 더 나아가면 여러 복잡한 단계의 생성 과정을 거쳐 통합합성어를 생성한 후 통사적 도출을 대기하고 있는 잠재적인 모습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然'이 형용사성 기능범주와 부사성 기능범주를 분별해 주는

8) 하영삼, 『한자어원사전』, 부산: 도서출판3, 2014, pp.478-479.

9) “# 【偶】 ①用木头、泥土等制成的人像：木偶 | 偶像。# 【偶】 ②①双数；成对的（跟‘奇(jī)’相对）：偶数 | 偶蹄类 | 无独有偶。②配偶：佳偶。③ (òu) [名] 姓。# 【偶】 ③ [素] [副] 偶然；偶尔：中途偶遇 | 偶一为之 | 偶感风寒。”[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 『现代汉语词典』(第七版), 北京: 商务印书馆, 2016, p.962.]

형태적 표지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분산형태론적 관점에서 볼 때 현대 중국어의 이런 'X+然' 구조는 내현적(Covert) 통합합성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통사적 도출 과정을 살펴보자.



(01-다)<sup>10)</sup>는 AdjP ‘偶然’이 ‘事故’와 결합하여 명사구 NP를 도출하고 있으면서 동사 등 다른 구조와 결합할 경우 영형태의 D와 함께 DP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여기에서 ‘偶然’은 형용사로서 ‘的’와 같은 관형격 표지<sup>11)</sup> 없이 직접적으로 명사 ‘事故’를 수식하여 도출하고 있다. (01-라)는 AdjP ‘偶然’이 사건구조화 층위로 도출되는 과정에서 adj’로 도출되는 중간 계층에서 AdvP ‘十分’과 결합하여 서술어(Prd)인 adjP<sup>12)</sup>를 도출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여기서도 ‘偶然’은 형용사로서 ‘是…的’과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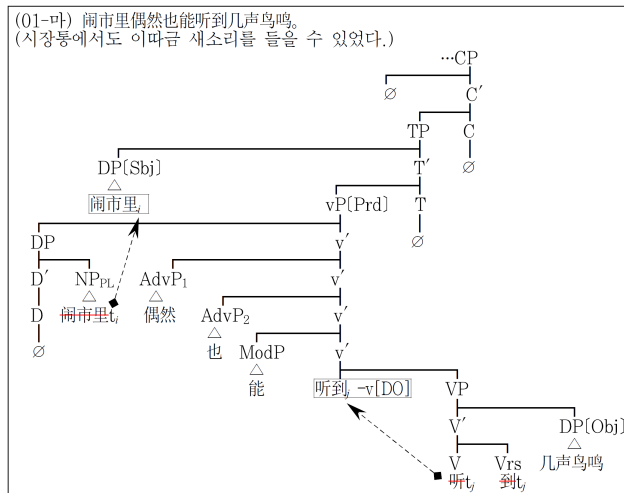
10) 예문에 주석을 달지 않은 경우는 『现代汉语词典』(第七版)에서 온 것임을 밝혀 둔다. ‘偶然’에 대한 『现代汉语词典』(第七版)의 풀이는 “【偶然】[ǒurán] ①【形】事理上不一定要发生而发生的；超出一般规律的：偶然事故 | 偶然因素 | 出现这一情况十分偶然。②【副】偶尔①：闹市里偶然也能听到几声鸟鸣。”이다.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 『现代汉语词典』(第七版), 北京: 商务印书馆, 2016, p.968.]

11) 일반적으로 구조조사라고 칭하지만 본고의 논지에 맞게 이렇게 칭하기로 한다.

12) 중국어는 영어와 달리 형용사도 서술어가 될 수 있으므로 영어처럼 ‘vP’로 표시하지 않고 구분하여 표시한다. 동사가 서술어로 쓰인 경우는 당연히 ‘vP’로 표시한다.

은 구조의 도움 없이 직접적으로 서술어로 도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1-마)<sup>13)</sup>의 ‘偶然’은 부사로서 직접 부사어 AdvP가 되어 사건구조화 단계의 ‘听到’와의 결합을 거쳐 vP[Prd]로 도출되고 있다. 즉, 원래 갖고 있는 부사로서의 속성으로 바로 부사어가 되어 직접 서술어를 수식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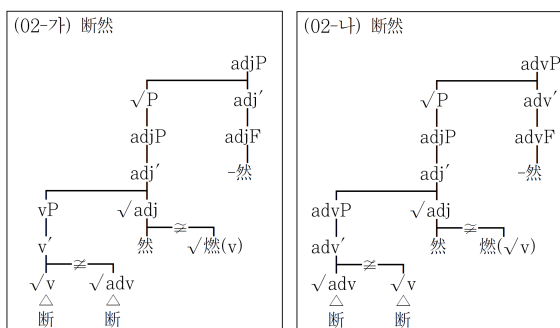


이상을 종합하면 ‘偶然’은 형용사로서 바로 관형어와 서술어로 도출(01-다, 라)되고, 부사로서 바로 부사어(01-마)로 도출되고 있다. 이런 부류에는 ‘纯然’과 ‘冷然’이 있다. 즉, ‘偶然’, ‘纯然’ 등은 모두 형용사와 부사를 가진 다품사어이면서 ‘X+然’의 ‘X’가 명사인 공통점을 갖고 있다. ‘纯然’의 ‘纯’을 형용사로 보는 관점도 있겠지만 본고는 ‘纯[생사]+然[그러하다]’의 구조로 보면서 염색을 하지 않은 [‘생사’가 ‘그러하다’]에서 ‘순연하다’, ‘순수하다’, ‘순전히’, ‘오로지’ 등의 형용사성과 부사성으로 파생되고 확장된 것으로 본다. 그

13) ‘闹市里’를 장소부사어로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고는 闹市里, 这儿, 桌子上 등은 주제어 또는 주어로 보며, 在闹市里, 在这儿, 在桌子上 등은 부사어로 본다.

리면서 통사적 도출 과정에서 부사 '纯然'은 부사격 표지 '地' 도움 없이 서술어를 꾸미는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형용사는 관형격 표지 '的'의 도움 없이 그 형태로 바로 관형어와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형용사와 부사로 된 다품사어이면서 어근 'X'가 동사인 경우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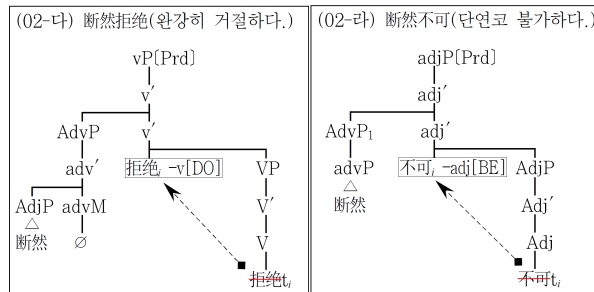


(02-가, 나)는 장호득(2021c: 313)에서 가져온 것으로 분산형태론적 관점에서 분석한 수형도이다. 하영삼(2014: 139)은 ‘断’을 “칼 같은 도구(斤)로 실을 끊음(断)”<sup>14)</sup>이라고 풀이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断’의 원래 의미는 동사 ‘끊다’이고 여기에서 ‘단호히’ 등의 확장 의미가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现代汉语词典』(第七版)도 동사로서 ‘끊다’, ‘나누다’ 등의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sup>15)</sup> 이렇게 보면 (02-가)는 ‘断[끊다; 동사/주어]+然[그러하다; 형용

14) “회의. 斤(도끼-근)과 鬚(이름-계)로 구성되어, 칼 같은 도구(斤)로 실을 끊음(断)을 말했다. 원래는 鬚로 써, 네 개의 纟(작을-요)와 한 개의 刀(칼-도)로 이루어져 칼(刀)로 실(纟)을 끊음을 말했는데 이후 斤이 더해져 지금의 자형이 되었다. 끊다, 자르다가 원래 뜻이며, 이후 단정하다는 뜻도 나왔다. 鬚를 뒤집어 반대 의미를 그려낸 것이 繼(이름-계)인데, 끊긴(鬚) 것을 실(糸·떡)로 잇다는 뜻이다.”[하영삼, 『한자어원사전』, 부산: 도서출판3, 2014, p.139.]

15) “【断】①【动】(长形的东西)分成两段或几段: 砍断 | 割断 | 绳子断了。②【动】断绝; 隔绝: 断水 | 断电 | 断奶 | 断了关系 | 音讯断了。③【动】间断: 她每天都来给老人洗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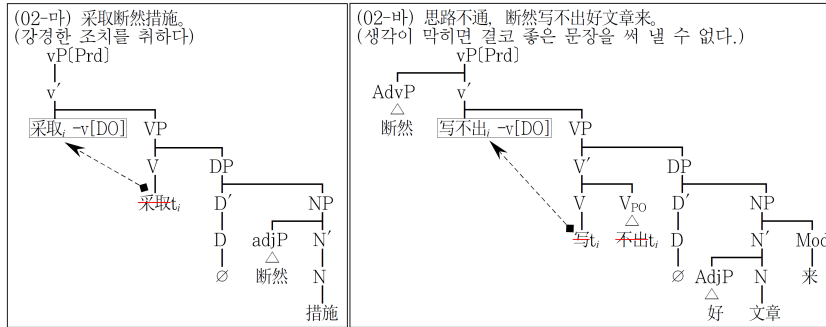
사/술어]'라는 분산형태적 구조에서 '然'이 다시 형용사화 기능범주 역할을 하면서 형용사성 통합합성어로 생성·도출된다. (02-나)는 '斷[끊다; 부사/부사어]+然[그러하다; 형용사/술어]'라는 분산형태적 구조에서 '然'이 다시 부사화 기능범주 역할을 하면서 부사성 통합합성어로 생성·도출된다.



(02-다)는 『现代汉语词典』(第七版)에 따르면 ‘완강하다[断然]’라는 뜻의 형용사가 형용사구 AdjP로 투사된 후 ‘거절하다[拒绝]’를 수식하면서 사건구조화 층위에서 경동사구로 도출되고 있다. 여기서도 (02-다) 형용사 ‘断然’이 다른 부사격 표지 ‘地’ 등의 도움 없이 그대로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6)</sup> 반면 (02-라)는 ‘단연코[断然]’라는 뜻의 부사가 부사구 AdvP로 투사된 후 ‘불가하다’는 형용사를 수식하면서 사건구조화 층위에서 경형용구로 도출되고 있다.

做饭, 从没有断过。④ [动] 拦截: 把对方的球断了下来。⑤ [动] 戒除 (烟酒): 断烟 | 断酒。⑥ [动] 判断; 决定: 断语 | 诊断 | 独断专行 | 这个案子断得公道。⑦ <书> [副] 绝对; 一定 (多用于否定式): 断无此理 | 断不能信。⑧ (Duàn) [名] 姓。[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 『现代汉语词典』(第七版), 北京: 商务印书馆, 2016, pp.326-327.]

16) (02-다, 라, 마, 바)의 예문은 『现代汉语词典』(第七版)에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断然】[duànrán]① [形] 坚决; 果断: 断然拒绝 | 采取断然措施。② [副] 断乎: 断然不可 | 思路不通, 断然写不出好文章来。”[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 『现代汉语词典』(第七版), 北京: 商务印书馆, 2016, p.327.]



(02-마)는 『现代汉语词典』(第七版)에 따르면 형용사로서 관형격 표지 ‘的’의 도움 없이 그대로 명사 ‘措施’를 수식하여 명사구 NP를 형성한 후 DP로 도출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02-바)는 ‘결코’라는 뜻의 부사로서 부사격 표지 ‘地’의 도움 없이 부사어로 투사되어 중간 계층에서 동사구를 수식하면서 경동사구로 도출되고 있다.

이런 부류에 속하는 어휘로는 ‘当然’과 ‘浑然’이 있다. 하영삼(2014)은 ‘當’<sup>17)</sup>과 ‘渾’<sup>18)</sup>을 각각 ‘가격이 비슷하다, 상당하다’와 ‘큰 물결이 용솟음치다’라는 동사로 풀이하고 있다. 『现代汉语词典』(第七版)에서는 4개의 표제자로 분리하여 ‘말다’, ‘마주하다’, ‘마땅하다’, ‘전당(典當)되다’, ‘적당하다’, ‘땅땅땅’ 등의 다양한 풀이를 싣고 있으며 품사도 동사, 형용사, 개사, 의성어, 명사 등 다양하지만 주요 품사는 동사로서 ‘상당하다’라는 뜻의 풀이를 1번 항목에 싣고 있다.<sup>19)</sup> 표제자 ‘渾’<sup>20)</sup>에 대해 『现代汉语词典』(第七版)은 ‘혼탁하다’ 등의

17) “형성. 田(밭-전)이 의미부이고 尙(오히려-상)이 소리부로, 논밭(田)의 가격이 서로 비슷하다는 뜻에서 ‘상당하다’의 뜻이 나왔고, 논밭을 저당잡히고 그에 상당하는 가격을 받음을 말했다. 이로부터 抵當(저당)이나 典當(전당)의 뜻까지 나왔다.”[하영삼, 『한자어원사전』, 2014, 도서출판3, p.146.]

18) “형성. 水(물-수)가 의미부고 軍(군사-군)이 소리부로, 큰 물결(水)이 용솟음치면서 흐르는 모양을 말하며, 이로부터 뒤섞이다, 混濁(혼탁)하다 등의 뜻이 나왔다.”[하영삼, 『한자어원사전』, 부산: 도서출판3, 2014, p.7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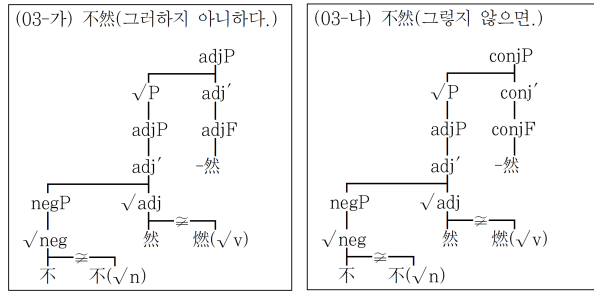
19) ◆【当】①相称：相当 | 门当户对 | 罚不当罪。②【动】担任；充当：当干部 | 选他当代

형용사로 풀이하고 있지만 위 하영삼에 따르면 확장 의미로 볼 수 있으므로, ‘斷然’과 마찬가지로 ‘渾然’은 ‘용솨음치다’의 동사 어근으로 생성되어 ‘渾然’으로 도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當然’<sup>21)</sup>과 ‘渾然’<sup>22)</sup>의 통사적 생성·도출도 ‘斷然’처럼 형용사로서 관형어[渾然一体]나 서술어[心里高兴是當然的] 역할을 하며, 부사로서 부사어[群众有困难当然应该帮助解决/渾然不觉] 역할을 하고 있다.

## 2) 형용사와 접속사로 된 다품사어

다음으로 형용사와 접속사로 된 다품사어에 대해 살펴보자.

- 表. ③ [动] 承當; 承受: 敢做敢當 | 當之無愧 | 我可當不起这样的夸奖. ④掌管; 主持: 當家 | 當权 | 當政 | 獨當一面. ⑤ [动] 助動詞. 应当: 該當 | 理當如此 | 能省的就省, 當用的还是得用. ⑥ [介] 面對着; 向着: 當面 | 當着大家說清楚. ⑦ [介] 正在 (那時候、那地方): 當今 | 當場 | 當我回來的時候, 他已經睡了. ⑧ <書> 阻擋; 抵擋: 螳臂當年 | 銳不可當. ⑨ <書> 頂端: 瓦當. ⑩ (Dāng) [名] 姓. ◆【當】<sup>2</sup> [拟声] 形容撞擊金屬器物的聲音: 時鐘當當當響了三下. 另見261頁dàng. ◆【當】<sup>3</sup> ①合宜; 合适: 恰當 | 妥當 | 得當 | 不當 | 失當. ② [动] 抵得上: 割麦子他一个人能当两个人. ③ [动] 作为; 当做: 安步当车 | 不要把我当客人看待. ④ [动] 以为; 认为: 当真 | 我当你回去了, 原来还在这儿. ⑤指事情发生的时间: 当时 | 当天 | 当年. ⑥同一个; 自己方面的: 当村 | 当家子. ◆【當】<sup>4</sup> ① [动] 用实物作抵押向当铺借钱: 当当 | 典当 | 一只手表当了二百块钱. ②押在当铺里的实物: 当当 | 赎当.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 『现代汉语词典』(第七版), 北京: 商务印书馆, 2016, p.259, p.262.]
- 20) 【渾】 ① [形] 浑浊: 浑水 | 把水搅浑. ② [形] 糊涂; 不明事理: 浑人 | 这人真浑. ③天然的: 浑朴 | 浑厚 | 浑金璞玉. ④全; 满: 浑身 | 浑似. ⑤ (Hún) [名] 姓.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 『现代汉语词典』(第七版), 北京: 商务印书馆, 2016, p.588.]
- 21) 【當然】 [dāngrán] ① [形] 应当这样: 理所当然 | 取得这么好的成绩, 心里高兴是当然的. ② [副] 表示合于事理或情理, 没有疑问: 群众有困难当然应该帮助解决.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 『现代汉语词典』(第七版), 北京: 商务印书馆, 2016, p.260.]
- 22) 【渾然】 [húnrán] ① [形] 形容完整不可分割: 浑然一体 | 浑然天成. ② [副] 完全; 全然: 浑然不觉 | 浑然不理.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 『现代汉语词典』(第七版), 北京: 商务印书馆, 2016, p.588.]



‘不然’은 형용사 ‘그러하지 아니하다’와 접속사 ‘그렇지 않으면’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수형도 (03-가)로, 후자는 수형도 (03-나)로 나타낼 수 있다.<sup>23)</sup> (03-가)는 부정사 어근(√neg) ‘不’가 형용사 어근 ‘然’과 결합하여 어근구로 도출된 후 다시 형용사화 기능범주 adjF ‘-然’과 결합하여 형용사성을 나타내는 통합합성어를 생성·도출하고 있다. (03-나)는 부정사 어근 ‘不’가 형용사 어근 ‘然’과 결합하여 어근구로 도출되는 점은 (03-가)와 같지만 그 후 다시 접속사화 기능범주 conjF ‘-然’과 결합하여 접속사성을 나타내는 통합합성어를 생성·도출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이렇게 볼 때 기능범주 ‘-然’은 기존의 형용사화, 부사화 접미사 기능뿐만 아니라 접속사화 접미사 기능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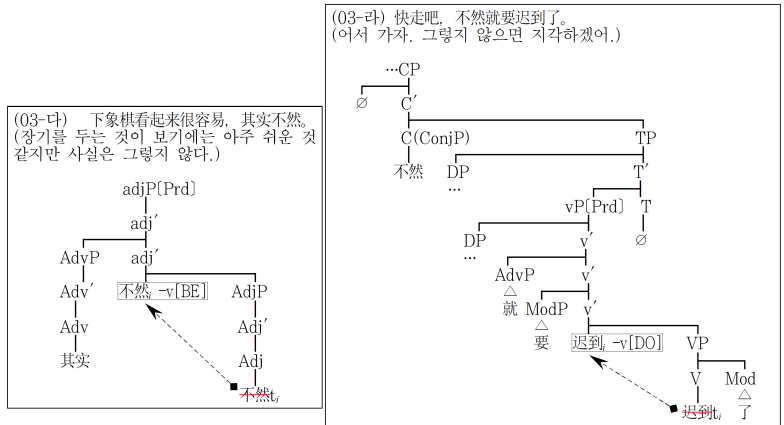
하영삼(2014)은 ‘不’를 “여물지 않은 씨방”<sup>25)</sup>으로 풀이하고 있는데 이 명

23) 장호득(2021c: 321)은 ‘不’를 ‘√adv’로 분석했는데 본고는 ‘√neg’로 분석했다.  
 24) 『现代汉语词典』(第七版)은 已然(동사, 부사), 未然(동사)으로 풀이하고 있는데, ‘-然’은 동사화 접미사 기능도 있다고 볼 수 있다.  
 25) “상형. 이의 자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여, 『설문해자』에서는 새가 하늘을 날아 오르는 모습을 그렸고 하늘을 올라가 내려오지 ‘않음’에서 부정의 뜻이 나왔다고 했으며, 혹자는 식물의 뿌리를 본래 뜻이라고 했다. 하지만, 꽃대와 꽃받침이 갖추어졌으나 제대로 여물지 않은 씨방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씨방이 여물지 않으면 씨가 만들어지지 않고, 씨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곡식을 자라나게 할 수 없다. 이로부터 부정의 의미가 만들어졌다. 그러자 胚胎(배태)하다는 원래 뜻은 가로획을 더해 丩(클-비)로 분화했는데, 丩가 ‘위대하다’는 뜻으로 쓰이게 되자 다시 肉(고기-육)을 더한 脍(아이 벨-배)로 분화했다. 참고로 완전히 여문 씨방의 모습은 帝[임금-제, 蒂(꼭지-체)의 본래 글자]로

사 어근(√n)은 어근구(√P) 생성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차된 부정사 어근(√neg)이 negP로 도출된 뒤 다시 형용사 어근(√adj)인 ‘然’과 결합하여 어근구(√P)로 투사된 후 또다시 형용사화 기능범주 ‘-然’과 결합하여 형용사성 통합합성어를 생성·도출하고 있다. (03-나)는 어근구(√P)까지 투사되는 방식은 같지만 마지막에 (03-가)와 달리 ‘-然’이 접속사성 접미사 기능을 하면서 통합접속사성 통합합성어를 생성·도출하고 있다. 이렇게 ‘不然’을 형태적으로만 볼 때는 형용사인지 접속사인지 구별할 수 없다. 그러므로 ‘不然’은 통사적으로 투사되어 생성·도출되는 과정까지 살펴야 비로소 그 정체성을 알 수 있다. 즉, 통사적 기능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통사적 투사를 통한 생성·도출 과정에서 그 정체성을 드러내므로 이것은 분산형태론에 의한 내현적(Covert) 통합합성어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반면 『現代漢語詞典』(第七版)에서는 ‘不’를 기본적으로 부정사로 풀이하고 있는데<sup>26)</sup>, 이는 수형도 (03-가, 나)와 그 궤를 같이 한다. 즉, ‘不’는 현대 중국어에서 그 원형 의미를 잃고 가차된 의미가 통합합성어의 생성·도출에 참여하고 있으며, ‘然’도 마찬가지로 ‘사르다’, ‘태우다’의 원형 의미를 잃고 가차된 의미인 ‘그러하다’, ‘이러하다’ 등의 형용사성 어근이 어근구(√P)로 투사되어 통합합성어의 생성·도출에 참여하고 있다. 아래에서 그 통사적 생성·도출 과정을 살펴보자.

표현했다.”[하영삼, 『한자어원사전』, 부산: 도서출판3, 2014, p.302.]

- 26) 【不】[副] ①用在动词、形容词和其他副词前面表示否定：不去 | 不能 | 不多 | 不经济 | 不一定 | 不很好。②加在名词或名词性词素前面，构成形容词：不法 | 不规则。③单用，做否定性的回答（答话的意思跟问题相反）：他知道吗？——不，他不知道。④<方>用在句末表示疑问，跟反复问句的作用相等：他现在身体好不？⑤用在动补结构中间，表示不可能达到某种结果：拿不动 | 做不好 | 装不下 | 看不出。⑥“不”字的前后重复使用相同的词，表示不在乎或不相干（常在前边加“什么”）：什么累不累的，有工作就得做 | 什么钱不钱的，你喜欢就拿去。⑦跟“就”搭配使用，表示选择：晚上他不是看书，就是写文章。⑧不用；不要（限于某些客套话）：不谢 | 不送 | 不客气。||注意(1)在去声字前面，“不”字读阳平声，如“不会”、“不是”。(2)动词“有”的否定式是“没有”，不是“不有”。[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 『現代漢語詞典』(第七版), 北京: 商務印書館, 2016, p.105.]



(03-다)는 ‘不然’이 형용사구로 생성된 후 사건구조화 층위에서 경형용사로서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달리 (03-라)는 ‘不然’이 보문사구에서 접속사로서 보문소(C)로 투사되고 있으며 복문을 생성·도출하고 있다.<sup>27)</sup> 이렇게 볼 때 ‘不然’ 자체로는 그것이 형용사인지 접속사인지 구별할 수 없으며, 통사적 생성·도출 과정을 통해서 그 정체성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不然’도 단순한 형태론에만 근거한 형용사나 접속사가 아니라 분산형태의 내현적 통합합성어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형용사를 포함한 다품사어는 ‘偶然’, ‘纯然’, ‘冷然’, ‘当然’, ‘不然’, ‘浑然’, ‘断然’ 총 7개이고 품사는 형용사와 부사 또는 형용사와 접속사로 구성되어 있다. ‘然’의 특징은 형용사와 부사의 접미사 외에 ‘접속사’의 접미사 기능도 갖고 있으며, 어근구(Root Phrase)를 형성하여 형태·통사

27) 【不然】[bùrán] ① [形] 不是这样：下象棋看起来很容易，其实不然。② [形] 用在对话开头，表示否定对方的话：不然，事情不像你说的那么简单。③ [连] 表示如果不是上文所说的情况，就发生或可能发生下文所说的情况：快走吧，不然就要迟到了 | 明天我还有点事儿，不然倒可以陪你去一趟 | 他晚上不是读书，就是写点儿什么，再不然就是听听音乐。[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现代汉语词典』(第七版)，北京：商务印书馆，2016，pp.110-111.]

적 정체성을 갖고 있다. 통사적으로는 경동사구(술어), 형용사구, 부사구, 관형사구 등으로 생성·도출되고 있다.

### 3. 형용사를 제외한 다품사어의 분석

#### 1) 동사와 부사로 된 다품사어

먼저 동사와 부사로 된 다품사어 ‘已然’을 분석해 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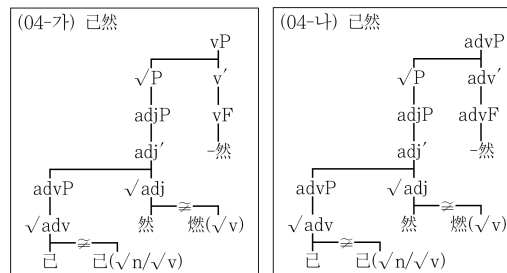
하영삼(2014)은 ‘已’를 ‘쟁기’<sup>28)</sup>로 풀이하고 있는데, 이 의미의 명사 어근(√n)은 어근구 생성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차되어 ‘이미’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 어근이 부사성 어근구로 생성된 뒤 다시 형용사성 어근인 ‘然’과 결합하여 어근구로 투사된 후 또다시 동사화 또는 부사화 기능범주 ‘-然’과 결합하여 동사성 또는 부사성 통합합성어를 생성·도출하고 있다. 『现代汉语词典』(第七版)는 표제자 ‘已’를 ‘정지하다’, ‘이미’, ‘성씨’ 등의 형태소, 부사, 명사 등으로 풀이하고 있다.<sup>29)</sup> 이들은 모두 원형 의미가 아닌 확장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표제자의 뜻풀이 말미에 “옛날에는 ‘以’와 같이 썼다.”라는 내용을 싣고 있는데 하영삼(2014)에 따르면 ‘以’를 “쟁기(耜) 같이 땅 파는 농기구를 그린 것”<sup>30)</sup>으로 풀이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원형 의미를 명사성 어근임을 유추할 수는 있지만 어근구 형성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확장

28) “상형. 자원이 불분명하나, 갑골문에서는 쟁기를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당시에 이미 원래의 뜻을 상실하고 완료나 도구를 나타내는 문법소와 ‘이미’라는 부사로 쓰였다. 예서 이후로는 已와 以(씨-이)의 두 글자로 분화되었다. 식사를 끝내고 머리를 돌린 모습을 그린 既(이미-기)와 독음과 의미가 같은 동원자(同源字)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영삼, 『한자어원사전』, 부산: 도서출판3, 2014, p.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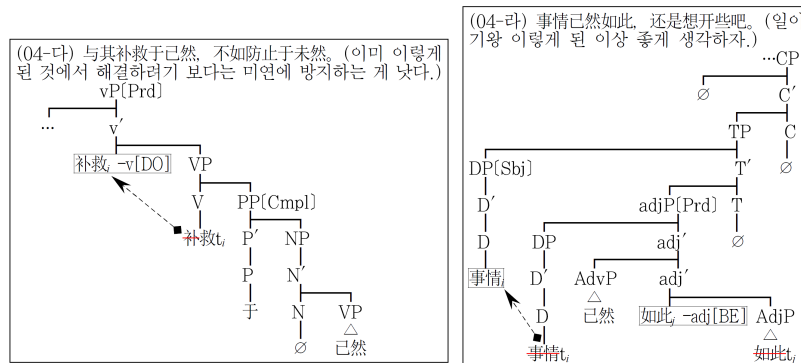
29) 【已】 ① 停止：争论不已 | 有加无已。 ② 【副】 已经（跟“未”相对）：已婚 | 已故 | 已知 | 时间已过 | 此事已解决。 ③ <书> 【副】 后来；过了一会儿：已而 | 已忽不见。 ④ <书> 【副】 太；过：不为已甚。 ⑤ (Yi) 【名】 姓。 <古> 又同“以”。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 『现代汉语词典』(第七版), 北京: 商务印书馆, 2016, p.1548.]

30) 하영삼, 『한자어원사전』, 부산: 도서출판3, 2014, p.526.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성 어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수형도를 그리면 장호득(2021c: 324)처럼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sup>3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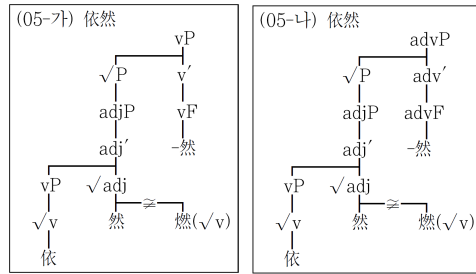
(04-가)와 (04-나)가 부사성 어근 '已'가 부사어로 투사되어 형용사성 어근 '然'과 결합한 후 어근구로 투사되는 단계까지는 같지만, 이후에는 각각 동사화 기능범주와 부사화 기능범주 '-然'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갈라져 통합합성어를 생성·도출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31) 장호득, 「현대 중국어 2음절 다품사어 'X+然'의 분산형태론적 중한 대조 분석」, 『중국어문학』 제86집, 영남중국어문학회, 2021c, p.324.

통사적 과정을 살펴보면 (04-다)에서는 먼저 동사 ‘已然’이 VP로 투사되고 영형태 명사 표지와 결합하여 NP를 형성한 후 전치사 ‘于’와 결합하여 전치사구로 생성되고 있다. 즉, ‘已然’이 동사이지만 명사성을 띠고 명사구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도 중국어는 잠재적인 기능을 드러내지 않는 형태를 취하면서도 통사적인 과정에서는 다양한 기능이 활용되는 내현적 통합합성어로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4-라)는 부사 ‘已然’이 형용사성 술어를 수식하는 전형적인 부사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sup>32)</sup>

동사와 부사로 된 다품사어이면서 어근 ‘X’가 동사인 ‘依然’을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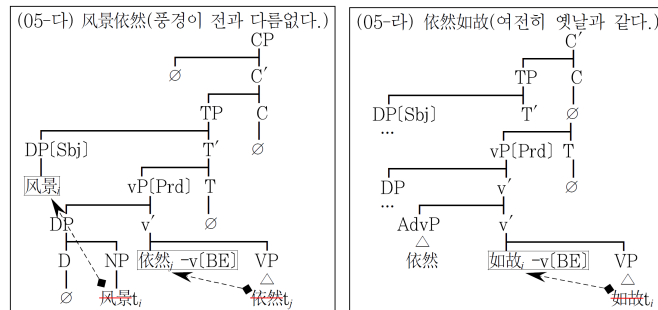


(05-가)와 (05-나)는 동사성 어근 ‘依’가 동사구로 투사되어 형용사 어근 ‘然’과 결합하여 어근구로 투사되는 점은 같지만 이후 각각 동사화 기능범주와 부사화 기능범주로 나누어져 통합합성어를 생성하는 점이 다르다.<sup>33)</sup>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기능범주 ‘-然’은 기존의 형용사화, 부사화 접미사 기능이 일반적이지만, (05-가)는 ‘X+然’ 구조의 ‘X’가 원형 의미인 동사성 어근으로 투사되면서도 ‘-然’이 각각 최종적으로 동사와 부사 접미사로 기능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영삼(2014)은 ‘依’를 “사람(人)이 옷(衣)을 입

32) 【已然】[yǐrán] ①【副】已经：事情已然如此，还是想开些吧。②【动】已经这样；已经成为事实：与其补救于已然，不如防止于未然。[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现代汉语词典』(第七版)，北京：商务印书馆，2016，p.1548.]

33) 장호득, 「현대 중국어 2음절 다품사어 ‘X+然’의 분산형태론적 중한 대조 분석」, 『중국어문학』 제86집, 영남중국어문학회, 2021c, p.323.

다”<sup>34)</sup>의 동사로 풀이하고 있다. 『现代汉语词典』(第七版)은 ‘依’에서 ‘맞대다’, ‘다붙다’, ‘기대다’ ‘성씨’ 등의 형태소, 동사, 개사, 명사 등으로 풀이하고 있다.<sup>35)</sup> 이렇듯 ‘依’는 그 원래 기본 속성이 동사성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然’과 결합하여 동사와 부사로 도출되고 있다. 동사로 도출되는 것은 ‘依’가 동사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已然’과 ‘未然’이 동사인 점을 감안하면 ‘然’이 동사성 접미사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05-다)는 동사 ‘依然’이 기본 어휘 배열 층위에서 동사구로 투사된 후 흔적을 남기고 다시 사건구조화 층위에서 경동사구로 투사된 후 서술어로 생성·도출하고 있다. (05-라)는 사건구조화 층위에서 부사 ‘依然’이 경동사구를 거쳐 서술어로 도출되고 있는 동사 ‘如故’를 수식하고 있는 구조이다.<sup>3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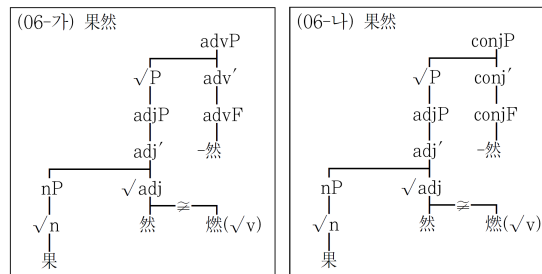
34) “형성. 人(사람-인)이 의미부고 衣(옷-의)가 소리부로, 사람(人)이 옷(衣)을 입다가 원래 뜻이며, 사람(人)에게서의 옷(衣)과 같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언제나 의지하며 기대야 하는 곳을 그렸다. 이후 의지하다, 근거하다, 순종하다 등의 뜻도 나왔다.”라고 풀이하고 있다.[하영삼, 『한자어원사전』, 부산: 도서출판3, 2014, p.512.]

35) ①紧挨着: 依偎 | 依山傍水. ② [动] 依赖; 依靠: 唇齿相依 | 相依为命 | 回乡依亲. ③ [动] 依从; 同意: 依违两可 | 劝他休息, 他怎么也不依. ④ [介] 按照: 依次 | 依法 | 依我看, 这样办可以. ⑤ (Yi) [名] 姓.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 『现代汉语词典』(第七版), 北京: 商务印书馆, 2016, p.1542.]

36) 【依然】[yīrán] ① [动] 依旧①: 风景依然. ② [副] 仍旧②: 依然如故 | 时至今日, 问题依然没有得到解决.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 『现代汉语词典』(第七版), 北京:

## 2) 부사와 접속사로 된 다품사어

본 절에서는 부사와 접속사로 된 다품사어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먼저 이런 부류 가운데 어근 'X'가 명사인 경우로서 '果然'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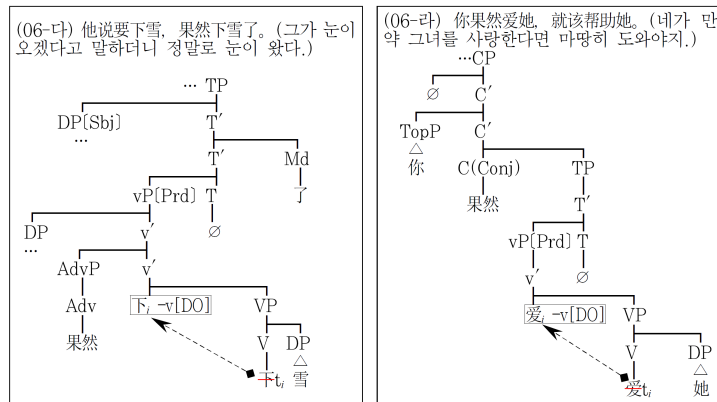
장호득(2021c: 320)은 ‘果’를 부사성 어근으로 보고 있지만 본고는 (06-가, 나)처럼 명사성 어근(√n) ‘果’가 명사구로 투사되어 형용사 어근 ‘然’과 결합하여 어근구로 생성되는 것으로 본다. 즉, [果(과실, 열매; 명사/주어)+ [然(그러하다; 형용사/술어)] 틀에서 어근구를 형성하는 것이다. 하영삼(2014)도 ‘果’를 “열매가 원래 뜻”<sup>37)</sup>이라고 풀이하고 있는 점에서 명사의 의미인 ‘열매’, ‘과실’을 원형 의미로 볼 수 있다. 『现代汉语词典』(第七版)도 ‘果’를 ‘과실’, ‘결과’, ‘과연’, ‘성씨’ 등의 명사, 부사, 접속사 등으로 풀이하고 있다.<sup>38)</sup> 이렇듯

商务印书馆, 2016, p.1542.]

37) “상형. 나무(木-목)에 과실이 열린 모습을 그렸는데, 과실을 그린 윗부분이 田(밭-전)으로 변해 지금의 자형이 되었다. 열매가 원래 뜻이며, 결실을 보다, 성과물, 이루다 등의 뜻이 나왔고, 다시 果斷性(과단성)이 있다, 확실히, 果然(과연) 등의 뜻도 나왔다. 그러자 원래 뜻은 艸(풀-초)를 더해 菓(열매-과)로 분화했다.”[하영삼, 『한자어원사전』, 부산: 도서출판3, 2014, p.066.]

38) 【果】① (~儿) [名] 果实①: 果核 | 水果 | 开花结果 | 这种梨, 果大皮薄, 口感也非常好. 注意“菓”是“水果”、“红果儿”等的“果”的异体字. ②事情的结局; 结果(跟“因”相对): 成果 | 前因后果. ③果断: 果敢. ④ [副] 果然①: 果不出所料. ⑤ [连] 果然②: 果能如此, 定有长进. ⑥ (Guǒ) [名] 姓.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 『现代汉语词

‘果’는 그 기본 속성이 명사성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然’과 결합하여 부사와 접속사로 도출되고 있다. 그런 다음 최종적으로는 각각 부사화 기능범주와 접속사화 기능범주와 결합하여 통합합성어를 생성·도출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여기에서도 기능범주 ‘-然’이 형용사화, 부사화 접미사 기능 외에도 (06-나)처럼 접속사화 접미사로 기능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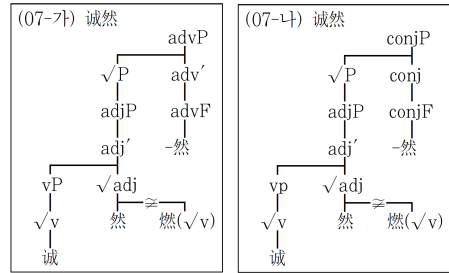


(06-다)는 부사 ‘果然’이 부사어로 투사된 후 사건구조화 층위의 동사 ‘下’를 수식하는 전형적인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다. (06-라)는 접속사 ‘果然’이 주제구와 시제사구 위치하여 접속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구조이다.<sup>39)</sup>

다음으로 부사와 접속사로 된 다품사어이면서 어근 ‘X’가 동사인 ‘诚然’에 대해 살펴보자.

典』(第七版), 北京: 商务印书馆, 2016, p.500.]

39) 【果然】[guǒrán] ① [副] 表示事实与所说或所料相符: 果然名不虚传 | 他说要下雪, 果然下雪了。② [连] 假设事实与所说或所料相符: 你果然爱她, 就该帮助她。[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 『现代汉语词典』(第七版), 北京: 商务印书馆, 2016, p.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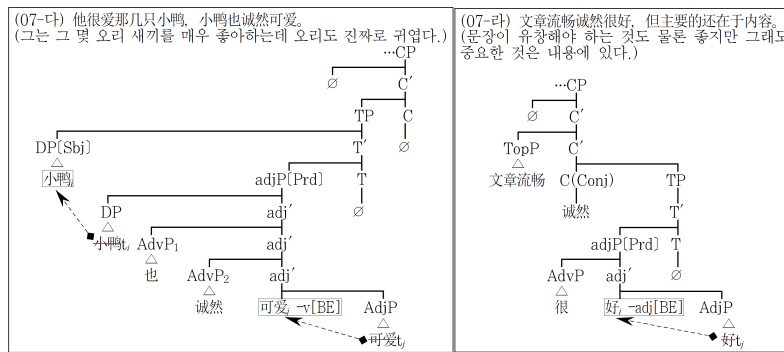
(07-가, 나)는 동사성 어근 ‘诚’이 동사구로 투사되어 형용사 어근 ‘然’과 결합하여 어근구로 투사된 후 다시 각각 부사화 기능범주와 접속사화 기능범주 ‘-然’과 결합하여 통합합성어를 생성·도출하고 있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기능범주 ‘-然’이 (07-가)처럼 형용사화 접미사 기능을 하는 점은 일반적이지만, (07-나)처럼 접속사화 접미사 역할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诚’을 ‘성실하다’, ‘진실되다’ 등의 형용사로 볼 수도 있겠지만, 본고는 ‘诚’이 ‘말을 실현하다’<sup>40)</sup>, ‘실천에 옮기다’ 등의 뜻에서 나온 후 ‘성실하다’ 등의 형용사로 파생된 것으로 보아 동사성 어근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본다. 『现代汉语词典』(第七版)을 ‘诚’을 ‘진실되다’, ‘실재로’, ‘성씨’ 등의 형용사, 부사, 명사 등과 함께 서면어에서는 ‘만약’이라는 접속사로도 쓰인다고 풀이하고 있는데,<sup>41)</sup> 자형의 의미에서 볼 때 ‘诚’은 원래 동사성에 기대어 있으며 그 이후 형용사성 등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诚然’의 통사적 연산 과정을 살펴보면 (07-다)는 부사 ‘诚然’이 부사어로 투사된 후 사건구조화 층위의 형용사 ‘可爱’를 수식하는 전형적인 부사어 역

40) “형성. 言(말씀-언)이 의미부고 成(이룰-성)이 소리부로, 정성이나 성실, 진실, 확실함 등을 뜻하는데, 말(言)을 실현하려면(成) 지극 정성(誠)을 다해야 하며 믿음이 담긴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라고 풀이하고 있다.[하영삼, 『한자어원사전』, 부산: 도서출판3, 2014, p.3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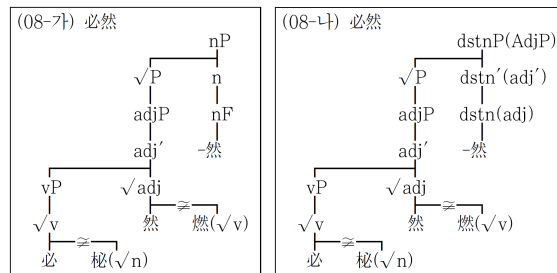
41) 【诚】①【形】(心意)真实:诚心诚意|开诚布公|她的心很诚。②<书>【副】实在;的确:此人诚非等闲之辈。③<书>【连】如果;果真:诚如是,则相见之日可期。④(Chéng)【名】姓。[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 『现代汉语词典』(第七版), 北京: 商务印书馆, 2016, p.167.]

할을 하고 있다. (07-라)는 접속사 ‘诚然’이 주제구와 시제사구 사이에 위치하여 접속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구조로 수형도는 아래와 같다.<sup>42)</sup>



### 3) 명사를 포함한 다품사어

본 절에서는 명사와 기타 품사로 된 구조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명사와 구별사로 된 다품사어이면서 어근 'X'가 명사인 '必然'을 살펴보자.



42) 【诚然】[chéngrán] ①【副】实在：他很爱那几只小鸭，小鸭也诚然可爱。②【连】固然（引起下文转折）：文章流畅诚然很好，但主要的还在于内容。[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现代汉语词典》(第七版)，北京：商务印书馆，2016，p.167.]

장호득(2021c: 325)이 ‘必’을 부사성 어근으로 분석하는 것과 달리, 본고는 (08-가, 나)처럼 동사성 어근 ‘必’<sup>43)</sup>이 동사구로 투사되어 형용사 어근 ‘然’과 결합하여 어근구로 투사된다고 본다. 그 후 각각 명사화 기능범주와 구별사화 기능범주 ‘然’과 결합하여 통합합성어를 생성한다. 여기에서도 ‘-然’은 기존의 형용사와 부사 접미사 기능 외에 앞에서 말한 동사와 접속사의 접미사 기능에 다시 명사와 구별사의 접미사 기능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然’은 명사, 동사, 형용사, 구별사 등 거의 모든 실사의 접미사로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허사인 부사, 접속사의 접미사로도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然’이 형태론적으로는 여러 접미사 기능을 하면서 통사적으로도 여러 의미역과 통사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복합적인 구조로 내현적 통합합성어의 특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现代汉语词典』(第七版)은 ‘必’을 ‘반드시’, ‘꼭’, ‘성씨’ 등의 부사와 명사로 풀이하고 있는데<sup>44)</sup> 앞의 하영삼(2014:718) 풀이와 종합하면 ‘必’은 명사인 ‘柅(자루-비)’에서 가차 관계를 형성하여 ‘낮창을 끼우다’에서 낮창의 무기는 자루가 꼭 필요하므로 ‘반드시’의 뜻으로 확장되었음[수형도 (08-가, 나)]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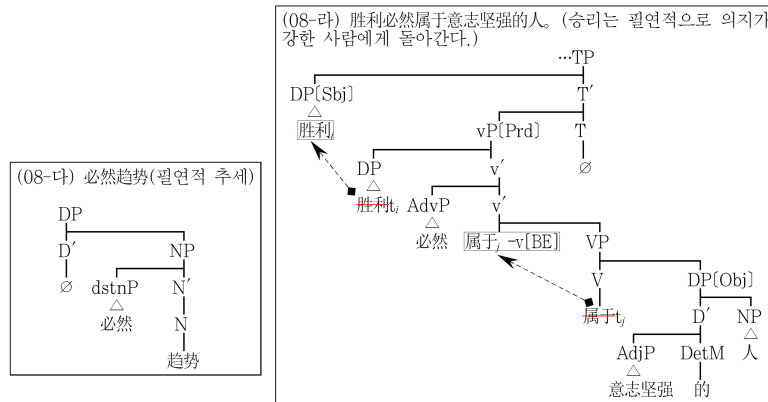
(08-다)는 속성사, 즉 구별사인 ‘必然’이 명사를 수식하는 구별사구로 투사되어 사건구조화 층위에서 명사 ‘趨勢’를 수식하여 명사구를 형성하고 있으며 나아가 영형태의 한정사와 함께 한정사구를 생성·도출하여 사건구조화 층위나 사건과 현실 연계 층위<sup>45)</sup>에서 투사되기 위한 모듈로 예비되어 있음을 나

43) 이렇게 보는 것은 하영삼(2014: 718)에 따른 것이다. 그는 ‘必’의 자원 풀이에서 “형성. ……금문에 의하면 戈(창-과)가 의미부고 八이 소리부로, 갈라진(八) 틈 사이로 낮창(戈)을 끼우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부터 무기의 자루라는 뜻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낮창 같은 무기는 반드시 자루에 끼워야만 사용할 수 있기에, ‘반드시’라는 뜻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광말약은 必이 柅(자루-비)의 원래 글자인 것으로 추정했다.”[하영삼, 『한자어원사전』, 부산: 도서출판3, 2014, p.718.]

44) 【必】①【副】必定；必然：我明天三点钟必到 | 不战则已，战则必胜。②【副】必须；一定要：事必躬亲 | 事物的存在和发展，必有一定的条件。③(Bi)【名】姓。[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 『现代汉语词典』(第七版), 北京: 商务印书馆, 2016, p.070.]

45) 사건구조화 층위, 사건과 현실 연계 층위 등은 김종호(2018), 『중국어 최소주의 생성문법 13강』,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 p.171을 참고하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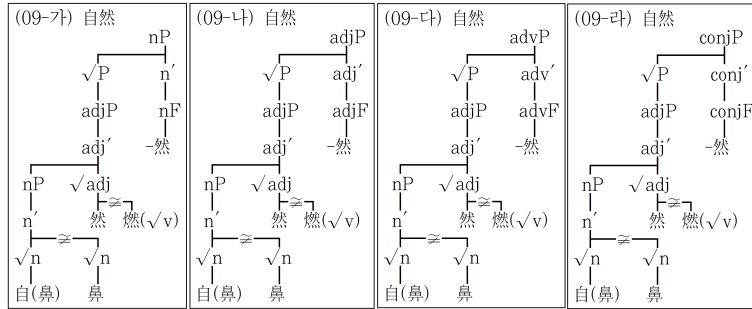
타내고 있다. (08-라)는 형용사이자 속성사인 ‘必然’이 부사어로 투사되어 사건구조화 층위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는 경동사구 ‘属于’를 수식하고 있는 구조이다.<sup>46)</sup> 이처럼 속성사, 즉 구별사로서 관형어와 부사어 역할은 그 자체로 가능하지만 서술어 역할을 하려면 ‘是…的’ 사이에 넣어 “工作刚开始, 遇到困难是必然的。”<sup>47)</sup>(일을 막 시작할 때 어려움에 부딪치는 것은 필연적이다.)처럼 구별사의 ‘명시적’ 또는 ‘지시적’ 특징을 연결시켜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명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로 된 다품사어이면서 어근 'X'가 명사인 ‘自然’에 대해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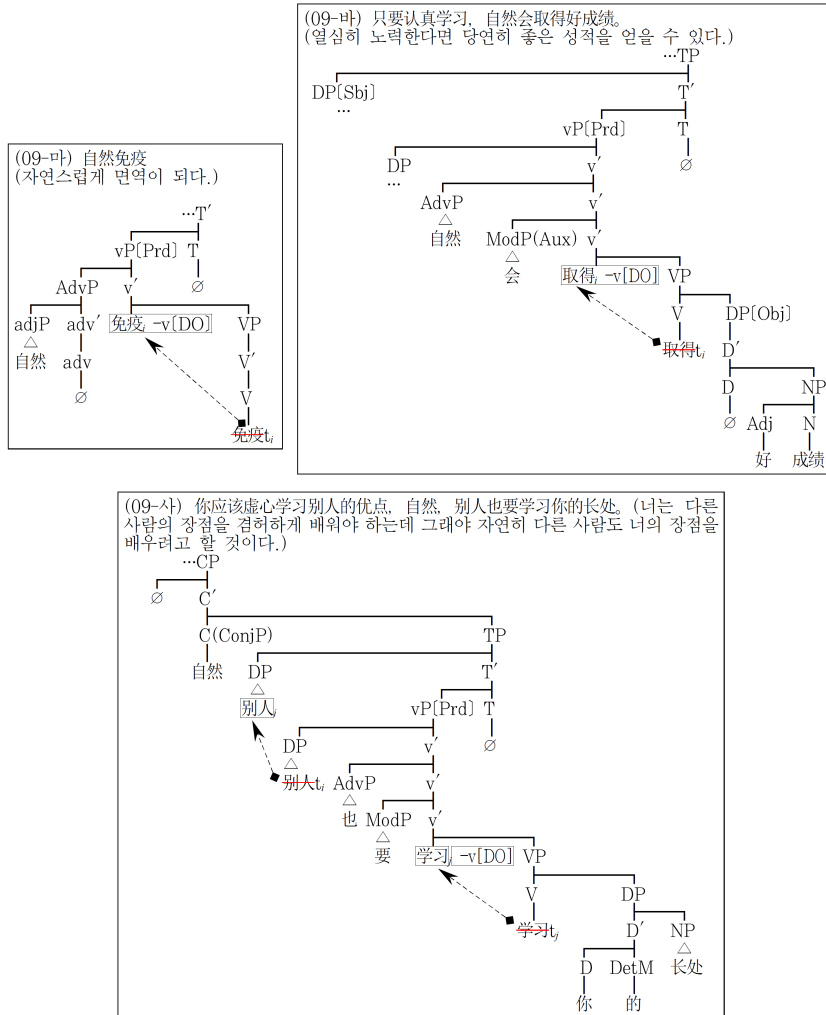
46) 【必然】[birán]① [形] 属性词。事理上确定不移：必然趋势 | 胜利必然属于意志坚强的人。② [名] 哲学上指不以人们意志为转移的客观发展规律：新事物代替旧事物是历史发展的必然。[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 『现代汉语词典』(第七版), 北京: 商务印书馆, 2016, p.070.]

47) 施光亨, 王绍新主编,(2011), 『汉语教与学词典』, 北京: 商务印书馆, p.57.



장호득(2021c: 326)에 따르면 ‘自然’의 수형도는 위와 같으며, 각각 명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로 형성된다. 하영삼(2014: 532)은 ‘自’를 “코를 그렸는데, 앞에서 본 모습을 그렸다.”라고 풀이하면서 ‘코’를 원형 의미로 보고 명사로 풀이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나아가 ‘자기’, ‘자신’, ‘자유’, ‘자연’ 등을 확장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확장 의미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鼻(코-비)’와 ‘自’의 가차(假借) 관계를 ‘≒’로 표시하였다. 『现代汉语词典』(第七版)은 ‘自’를 2개로 나누어 표제자를 싣고 있는데 하나는 ‘자기’, ‘자연히’, ‘당연히’, ‘성씨’ 등의 명사와 부사로, 다른 하나는 ‘...부터’의 개사로 풀이하고 있다.<sup>48)</sup> 이상을 종합하면 명사 ‘自’와 ‘鼻(코-비)’는 가차 관계에 있으며 원형 의미 ‘코’와 ‘자기’, ‘자신’ 등 확장 의미가 형용사성 어근 ‘然’과 결합하여 ‘[自(자신; 명사/주어)]+ [然(그러하다; 형용사/술어)]’이라는 의미·어형틀을 형성한다. 그런 다음 이 틀이 다시 ‘-성 기능범주’인 접미사 ‘-然’과 결합하여 명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등 다양한 형태의 내현적 통합합성어로 생성·도출되고 있음을 (09-가~라)로 보여 주고 있다.

48) 【自】 ①自己：自动 | 自卫 | 自爱 | 自力更生 | 自言自语 | 自娱自乐 | 自告奋勇 | 自顾不暇 | 不自量力。②【副】自然；当然：自不待言 | 公道自在人心 | 两人久别重逢，自有许多话说。③ (Zi) 【名】姓。# 【自】<sup>2</sup>【介】从；由：自小 | 自此 | 自古 | 自远而近 | 自北京出发 | 选自『人民日报』 | 来自各国的朋友。[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现代汉语词典』(第七版)，北京：商务印书馆，2016，p.1736.]



‘自然’이 명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는 주어, 목적어 등 한정사구로 생성·도출될 것인데 『现代汉语词典』(第七版)에서는 예시문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sup>49)</sup>

49) 【自然】<sup>1</sup>[zìrán] ① [名] 自然界; 大自然。 ② [形] 自由发展: 不经过人力干预: 自然免疫 |

(09-마)는 ‘自然’이 형용사로서 부사격 표지 없이 바로 부사어로 투사되면서 사건구조화 층위의 경동사 ‘免疫’을 수식하고 있다. (09-바)는 부사 ‘自然’이 부사어로 투사되어 사건구조화 층위에 있는 조동사 ‘會’와 경동사 ‘取得’을 수식하고 있는 구조이다. (09-사)는 접속사 ‘自然’이 보문사(C)로 투사되어 시제 사구(TP)와 통어관계를 형성하면서 보문사구를 생성·도출하고 있다.

#### 4. 결론

본고는 현대 중국어의 2음절 다품사어 ‘X+然’ 구조의 형태·통사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 대상은 『现代汉语词典』(第七版)에 실려 있는 2음절 다품사어 ‘X+然’ 구조에 해당하는 어휘이다. 이들을 형용사를 포함하는 다품사어[‘偶然’, ‘纯然’, ‘冷然’, ‘当然’, ‘浑然’, ‘断然’, ‘不然’]와 형용사를 포함하지 않는 다품사어[‘已然’, ‘依然’, ‘果然’, ‘诚然’, ‘必然’, ‘自然’]로 나눴다.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주장처럼 ‘X+然’의 ‘然’은 형용사와 부사 접미사로 기능하는 것이 알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기존에 주장되지 않았던 동사, 명사, 구별사, 접속사의 접미사로도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X+然’은 구조주의 어휘론의 형태적 특징으로만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형태론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어근구(Root Phrase) 투사를 통하여 통합합성어를 생성한 후 그 통사구조를 유연하게 생성·도출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다품사어 ‘X+然’도 단일 품사어처럼 형태·통사적 특징을 가지며, 통사적 층위까지 연결되어 그 정체성을 발현하는 분산형태론(Distributed Morphology)의 내현적 통합합성어(Covert Synthetic Compounds)이다.

听其自然 | 自然而然 | 你先别问, 到时候自然明白。③【副】表示理所当然: 只要认真学习, 自然会取得好成绩。④【连】连接分句或句子, 表示语义转折或追加说明: 你应该虚心学习别人的优点, 自然, 别人也要学习你的长处。[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 『现代汉语词典』(第七版), 北京: 商务印书馆, 2016, p.1738.]

## 參考文獻

- 김중호, 『중국어 최소주의 생성문법 13강』,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 2018.
- 박소영, 「한국어 통합합성어의 통사구조와 형태-통사론의 접면」, 『생성문법연구』 제21권 제4호, 한국생성문법학회, 2011.
- 박소영, 「분산형태론의 이론적 동향과 한국어 문법」, 『우리말연구』 49집, 우리말학회, 2017.
- 장호득, 「현대 중국어 2음절 단일 품사어 'X+然'과 그 동형 한자어의 형태론적 중한 대조 분석」, 『중국문학연구』 제82집 한국중문학회, 2021a.
- 장호득, 「현대 중국어 2음절 단일 품사어 'X+然'의 생성과 도출」, 『비교문화연구』 제62집,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21b.
- 장호득, 「현대 중국어 2음절 다품사어 'X+然'의 분산형태론적 중한 대조 분석」, 『중국어문학』 제86집, 영남중국어문학회, 2021c.
- 하영삼, 『한자어원사전』, 부산: 도서출판3, 2014.
- 董琨, 『古代汉语漫谈』, 济南: 齐鲁书社, 1986.
- 董同龢, 「古籍訓解和古語字義的研究」(丁邦新編, 『董同龢先生語言學論文選集』), 台北: 食貨出版社, 1981.
- 廖序东, 『文言语法分析』,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1981.
- 施光亨, 王绍新主编, 汉语教与学词典, 北京: 商务印书馆, 2011
- 杨伯俊, 何乐士, 『古汉语语法及其发展』, 北京: 语文出版社, 1992.
- 蒋礼鸿, 任钟善, 『古汉语通论』, 杭州: 浙江教育出版社, 1984.
- 张贻惠, 『古汉语语法』, 武汉: 湖北人民出版社, 1957.
- 周秉钧, 『古汉语纲要』, 长沙: 湖南人民出版社, 1978.
-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 『现代汉语词典』(第七版), 北京: 商务印书馆, 2016.
- 蒲立本, 『古汉语语法纲要』(孙景涛译), 北京: 语文出版社, 2006.
- 许仰民, 『古汉语语法』 开封: 河南大学出版社, 1988.

Heidi Harley and Rolf Noyer, *State of the Article: Distributed Morphology*, Glot International, 4:3-9, 1999.

Morris Halle & Alec Marantz, *Distributed Morphology and the Pieces of Inflection*, K. Hale & S. J. Keyser(eds.), The View from Building 20, MIT Press, pp.111-176, 1993.

Morris Halle & Alec Marantz, *Some Key Features of Distributed Morphology*,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21: 275-288, 1994.

## Abstract

### A study on Morpho-syntactic Generation and Derivation of two-syllabic structure 'X+rán(然)' (multi-parties of speech) in the Modern Chinese

Chang, Ho Deug

This paper aims to analyze and identify the morpho-syntactic features of the two-syllabic structure 'X+rán(然)'(multi-parties of speech) in Modern Chinese and its Generation & Derivation.

The subjects of the analysis were divided into the multi-parties of speech words that include adjectives and the multi-parties of speech words that do not include adjectives. There are seven words belonging to the former: 'ouran(偶然)', 'chunran(纯然)', 'lengran(冷然)', 'dangran(当然)', 'hunran(浑然)', 'duanran(断然)' and 'buran(不然)'. There are six words belonging to the latter: 'yiran(已然)', 'yiran(依然)', 'guoran(果然)', 'chengran(诚然)', 'biran(必然)' and 'ziran(自然)'.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ntrary to the existing argument, it was found that 'rán(然)' of 'X+rán(然)' not only functions as suffixes of adjectives and adverbs, but also functions as suffixes of verbs, nouns, disjunctives and conjunctions.

Second, 'X+rán(然)' does not function solely with the morphological features of structuralism, but rather generates and derives the syntactic structures flexibly after generating the synthetic compounds through the generation and projection of the Root Phrase.

In conclusion, multi-parties of speech 'X+rán(然)' consists of covert synthetic compounds of distributed morphology that has morpho-syntactic features and is connected to syntactic layers to express its identity.

**Key words** : Modern Chinese, X+rán(然), two-syllabic, multi-parties of speech, morpho-syntactic, synthetic compounds

투 고 일 : 2021. 4. 10. / 심 사 일 : 2021. 4. 15.~ 2021. 5. 15. / 게재확정일 : 2021. 5. 20.

